

근대 역사 한바퀴 ... 추억을 완주하다

전북 완주 삼례 '시간여행 길'

완주군 삼례읍은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궤적이 쌓인 곳이다. 인구 2만여 명의 작은 도시지만, 근대 격동기를 한 몸에 안고도 만경강의 여유로운 풍경과 예술이 숨 쉰다. 삼례는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집결지였으며, 동학 지도부와 교도 4만명이 모여 동학교조신원운동을 벌였던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공간을 품고 있다. 고대 군사적 거점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삼례토성이 최근 발굴됐고,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현장이 양곡창고로 남아있다. 삼례에서 근대 격동기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양곡창고에서 변신한 삼례문화예술촌.



올해만 3만명이 찾은 정도로 인기를 모은 삼례 치맥축제 현장 모습.

◇삼례 여행의 심장, 삼례문화예술촌

삼례문화예술촌은 일제강점기 호남지방에서 수탈한 쌀을 삼례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지어진 양곡창고에서 출발했다. 광복 이후 2010년까지 농업 창고로 사용되던 이 건물을 완주군이 2011년 매입해 리모델링했고, 2013년 6월 북학문화예술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식민지 시기의 아픈 기억을 지우는 대신, 그 흔적을 문화와 예술로 치유하는 재생 프로젝트였다.

목조 빗살무늬와 격자 모양의 특이한 내부 디자인, 각 100평 규모의 창고 5동이 집단화된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창고 벽체가 일본식 견식 벽구조와 양철 마감으로 이루어진 보기 드문 구조라는 점과 역사성이 인정돼 2013년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2017년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경사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장, 휠체어 대어 등 대표적인 무장애 관광지다.

옛 목조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제1전시관, 복합문화공연장과 야외광장, 북아트센터·목공예 체험공간, 책·공예 소규모 상점과 카페 등이 들어섰다. 주말 상설공연과 영화 상영, 목공·북아트 체험, 책 만들기 교육 등이 이어지며, 삼례문화예술촌은 문화정책의 실험실이자 방문객이 함께 쓰는 일상형 문화플랫폼이 됐다.

최근에는 '스테이 삼례'를 슬로건으로 한 1박2일 런케이션 투어 '삼례너머로(路)'가 배움



비비정에서 바라본 옛 철길에 놓인 예술 열차가 석양 속 한 폭의 동양화를 연출하고 있다.

〈완주군 제공〉

동학혁명 집결지·일제강점기 곡물 수탈의 현장

2010년 양곡창고 리모델링해 문화예술촌 변신

전시·공연장, 북아트센터·목공예 체험공간 등 갖춰

1박2일 런케이션투어 '산레너머로' 인기

'전주·완주 8경' 비비정, 만경강 철교와 낙조 '낭만'

우석대 'W-SKY23 전망대' 삼례문화벨트 한 눈에

과 휴식을 함께 담은 특별한 여행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삼레너머로'는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삼례책마을, 그림책미술관, 비비정까지 연결하는 이야기꾼 해설, 막걸리 테마 석식과 함께하는 '한방울의 비밀' 브랜드공연, 비비정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무소음 헤드셋을 착용하고 걷는 만경강 달빛산책, 지역의 핫플 맛집인 홍식당에서 즐기는 '삼례 치맥'까지 만경강의 빼어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감성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공공기관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축제인 '치맥 하삼:레'는 올해에만 3만여명이 다녀갔다. 완주 농산물과 함께하는 보부상마켓, 어린이 위터밤 축제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이 사계절 내내 이어지며 매년 12만명이 찾는 생활형 명품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

◇만경강을 굽어보는 정자와 예술열차, 비비정

비비정은 만경강을 따라 펼쳐진 전주·완주 8경 가운데 하나로, 강 위로 떨어지는 낙조와 안개, 철교와 강변 마을이 한 화면에 담기는 풍경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바라본 강마당은 예부터 '비비낙안(飛鴈落雁)'이라 불렸다. 한때 (만경강) 백사장에 내려앉은 기러기떼를 비비정에서 바라본 모습을 뜻하는데, 지금도 해 질 무렵이면 강 위로 내려앉은 새떼와 붉게 물든 하늘이 옛 시구를 떠올리게 한다.

강변 폐철교 위에 자리한 '비비정예술열차'는 옛 새마을호 객차 4량을 매입해 리모델링했다. 1량은 레스토랑, 2·3량은 갤러리와 카페, 4량은 테라스형 공연공간으로 구성됐다. 전망대 역할을 겸하는 열차 테라스에 서면, 만경강 철교와 비비정,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물고기철길'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시작된 '근대역사 해설버스'가 비비정 일대를 주요 코스로 삼아 운영되고 있다. 옛 삼례역과 양수장, 대간선수로를 따라 이어지는 노선은 곡물 수탈의 역사와 수리시설, 근대 교통망의

변화를 함께 보여주며, 삼례 일대의 시간 지층을 읽는 입체적인 여행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삼례문화예술촌에서 비비정과 물고기철길까지 이어지는 길은 근대역사 문화여행, 스텝투어, 수변걷기 프로그램 등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물고기철길이 완공되면, 삼례 일대가 강과 철길, 예술과 산업유산을 한 번에 만나는 수변관광의 거점으로 한층 더 주목받을 전망이다.

◇만경강 유역과 삼례문화벨트를 한눈에 'W-SKY23 전망대'

우석대 본관 23층에 조성된 'W-SKY23 전망대'가 만경강 유역과 삼례읍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완주군이 우석대와 협력으로 만든 전망대에 서면 발 아래 만경강 유역에서부터 멀리 서쪽으로 정읍 갈매와 부안 내빈산·새만금 일원, 동쪽으로는 전주와 익산 도심까지 이어지는 풍경이 360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주변으로 완주 상운리 고분군과 배매산성, 삼례토성 등 마한·백제 시기 유적, 익산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 고려 현종이 방문했던 삼례 역참터(현 삼례동부교회), 동학 삼례광장과 봉기 추경지(삼례벌), 일제강점기 쌀 수탈을 위해 만든 대간선수로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삼례문화예술촌이 '땅 위에서 역사를 체험하는 공간'이라면, W-SKY23 전망대는 그 역사와 지형을 읽어내는 공중 지도인 셈이다.

◇비비낙안을 품은 삼례토성

삼례토성은 최근 토성 내 지표에서 구석기 유물이 수습되면서, 이 지역의 역사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했다. 본격적인 성곽 축조는 약 1,500년 전, 마한 말에서 백제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만경강 유역을 관할하던 행정·군사 거점으로 기능했다.

삼국시대 전후에는 만경강 수운과 평야를 기반으로 고대 교통망과 정치권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 유적으로, 백제의 전북 진출 시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금마 도성 방어체계의 주요 거점이자, 후백제 견훤이 중국 오월(吳越)과 교류하던 장구로 기능하는 등 대외문화 유입 통로로도 의미가 크다.

현재 삼례토성 정상부에는 근현대에 조성된 물탱크가 남아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와 물탱크를 활용한 소규모 전망시설을 통해 만경강 수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전북일보·완주 김원용 기자